

14

ACOH 학술대회 개최로 국제학술교류를 시작하다

아시아산업보건학회(ACOH: Asian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는 일본 '테루오가' 선생의 제창으로 1954년 동경에서 창립되었다. 3년 마다 개최되는 ACOH에 한국은 1973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학회때 가입했고, 1976년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차기 회장으로 최영태 회장이 선임되면서 1979년 아시아산업보건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이 유치한 '아시아산업보건학회(ACOH) 학술대회'

1979년, '제9차 아시아산업보건학술대회 및 총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주최하고 노동청의 후원을 받았으며, 주 업무는 가톨릭대학 예

제9차 아시아산업보건학회(1979)



제9차 아시아산업보건학회 자료집, 기념품



방의학교실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는 외국인 142명과 내국인 332명 등을 포함하여 모두 474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가했다. 한국의 산업보건학계를 이끌던 인사들이 모두 모인 이 학술대회에서는 모두 74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세계적 수준의 산업보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발표된 논문의 분야는 산업보건서비스의 조직, 산업재해와 예방, 작업환경대책, 정신위생, 농촌의학, 공업중독, 노동생리, 인간공학, 물리적 원인에 의한 직업병, 비직업성 질환, 소음과 진동, 진폐증 등이었다.

이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보건의 발전이 가져다 준 결과이며, 그간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반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4차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ICOH의 직업독성위원회(SCOT) 초대위원장인 교토의대 Ikeda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된 '산업 및 환경보건에 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제4차 모임이 대한산업보건협회 주관으로 1998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가톨릭대학 의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심포지움은 서울산업보건센터 소장인 정규철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가톨릭의대의 윤임중 교수가 학술위원장을, 그리고 이세훈 교수가 사무국장을 맡아서 준비하였다. 조규상 교수의 노력으로

기조강연 주제와 발표자

기조강연 주제	발표자 (국적)
산업 및 환경보건에서 생물학적 지표(marker)의 역할	A Multi 교수 (이탈리아)
연폭로근로자 건강관리에서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역할	이병국 교수 (한국)
생물학적 위해성에 대한 개인감수성의 생물학적 지표	T Nakajima교수 (일본)
발암성물질 폭로와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	G Talaska교수 (미국)
폭로 모니터링과 영향 모니터링의 실제적 적용	A. Aitio교수 (WHO)
폭로지표로서의 요중 유기용제 모니터링	M. Ikeda교수 (일본)

제4차 생물학적 모니터링 국제심포지움(1998)



WHO/WPRO에서 개발도상국가 참가자들에게 협회가 참가비를 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9명을 지원하였다.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브라질 등 모두 33개국에서 91명이 참석하여 과거에 비하여 참석자수로 볼 때 손색이 없었다. 한국인 참가자수는 62명으로 총 153명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기초연설, 기초강연, 자유연제 구연발표와 포스터세션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심포지움은 조직위원장인 정규철 교수의 개회사와 노동부 안영수 차관의 환영사 그리고 WHO/WPRO 사무총장인 한상태 박사의 축사 등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개최한 본 심포지움의 수준은 새로운 연제도 적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매우 성공적인 심포지움이었다고 평하였다. SCOT위원장인 Anotnio Mutti 교수는 자신이 폐회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탈리아인답게 한국의 진행자들을 위한 기립박수를 제안하는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본 심포지움에서 두드러지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의 감수성에 관한 연구가 과거보다 많았을 뿐 아니라 주된 관심분야이었다. 특히 유전자의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에 관한 연제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활발하게 발표하였는데, 발표내용이 유전자의 다형성에 대해 분포 등을 조사하거나 과거 외국의 다른 연구결과들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추시해 보는 수준이 아니라 각종 유해인자나 환경적인 여건 및 몇몇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의 다형성을 연구한 결과들이어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가 선진국 못지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된 만찬과 공연에서 국악예술의 한마당은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기에 충분하였다. 노래와 춤 및 국악연주로 구성된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촬영 경쟁을 벌렸다.

일본과 기술교류, 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로 활성화

1972년 설립된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산업보건 기술교류' 라는 뜻하지 않은 호재까지 일구어 냈다. 마산산업보건센타가 일본 해외기술협력단으로부터 기자재와 기술을 지원받아 마산 수출자유지역내에 산업보건을 위한 의료시설이 입주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일본과의 인연은 1976년 한일간의 산업보건기술교류를 위한 회의를 구성하는 합의로 이

제1회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1984)



어졌다. 이때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일간의 기술교류를 위하여 서로 젊은 산업보건 관계자를 보내 견학을 통한 교류를 하자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교류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협회에서 근무하던 산업위생 관계자들이 일본에 파견되어 '경도공장보건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보건실무를 익히고 돌아왔다.

1979년 제9차 아시아산업보건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됨을 계기로 일본과 기술교류의 물꼬가 다시 열렸다. 서울에서 만난 한국과 일본의 대표가 매년 교대로 양국간 학술집담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이다. 학술집담회의 한국 대표는 조규상 회장이, 간사는 이승한 교수가 맡아 준비하기로 했다. 1984년부터 시작된 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후에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로 발전)는 인근 국가들과의 학술교류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친교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조출하게 시작한 학술집담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여 결실이 있고 명성이 높은 국제학술집담회로 성장하였다. 1987년부터는 중국이 읍저버로 참석하다가 2000년에 정식으로 학술집담회의 회원국으로 가입, 이때부터 한·일·중 3개국의 학술집담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23회까지의 3국의 참가자는 한국 1,796명, 일본 1,285명, 중국 888명으로 3,969명에 달해 그동안 3국 산업보건전문가들의 학술교류와 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일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는 국제산업보건 학술교류활동 중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